

에어필립, 광주·전남 새 하늘길 연다

항공업계 최초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항공사 ㈜에어필립(대표이사 회장 엄일석)이 광주·전남의 새로운 하늘길을 연다.

에어필립의 취항은 광주·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에어필립에 따르면 광주·무안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필립이 오는 30일 첫 운항한다.

에어필립은 매일 광주-김포, 김포-광주 노선을 각각 3회씩 운항할 계획이다. 요금은 광주-김포 노선은 주중 7만~13만원, 주말 9만~13만원, 성수기 13만원이다.

에어필립은 추후 인천·김해·울산·흑산도·울릉 등으로 국내 노선을 차츰 늘려 갈 계획이다. 특히 주력노선으로 추진 중인 광주-인천, 무안-인천 노선은 인천공항 SLOT 확보 즉시 정기·부



에어필립 1호기인 ERJ-145항공기

30일 광주-김포 첫 취항... 인천 등 노선 확대 무안공항 활성화·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기여

정기 노선으로 운항할 방침이다.

또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영동지역과 전라지역을 잇는 광주-양양, 동서간 교통이용에 탄력을 줄 영남지역과 전라지역을 잇는 광주-김해, 광주-울산 노선도 운항할 예정이다.

여기에도 동북아 관광객 유치 뿐 아니라 도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도서공항인 흑산공항과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해당공항 활주모에 맞는 운항기종을 도입, 내륙공항과 도서공항을 연결하는 광주-흑산, 광주-울릉 노

선운항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에어필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내국인의 일본 등 해외 관광 수요에 맞춰 국제선 신규노선 운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무안-일본 노선을 계획한 데 이어 2019년 신기종(E-175) 도입 이후 중국·대만·홍콩 등 동남아시아와 필리핀·베트남·러시아 블라디보스톡·미국 괌까지 운항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엄일석 에어필립 회장은 "정규직원 40% 이상을 지역사회에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항공 교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광주·전라권 주민들의 편익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라도 관광사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수한 항공사가 돼 호남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호남 최초의, 최고의 항공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미에 기자



박군택

배성범

장영수

광주 고검장 박군택·지검장 배성범

광주고검 차장 장영수...검찰 고위직 인사

신임 광주고검장에 박군택(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장엔 배성범(23기) 창원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광주고검 차장겸 사안장영수(24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승진 임명됐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을 맡았던 양부남(22기) 광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옮겼다.

<관련명단 19명>

법무부는 22일자로 검사 고위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유일한 고검장급 승진자인 박 신임 검사장은 광주 출신으로 대동고·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정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

검 제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대전지검 차장을 거쳐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5월 11만 만에 호남 출신으로 법무부·검찰 양대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광주지검장은 배성범 창원지검장이 보임됐다. 배 신임 검사장은 경남 출신으로 마산고·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구지검 상주지정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부산지검 제2차장,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수원지검 안산지정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이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방해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면서 직무대리를 하기도 했다.

/고광민 기자

광주시가 현대차와 추진 중인 광주완성차 공장설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차와의 투자협약이 무기한 연기된 데다 현대차 노조마저 투자협약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날 현대차와 합작법인 형식의 완성차 공장설립을 위한 협약조인식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합작법인 이사회 구성, 경영책임 부담, 위탁생산 차종과 가격 등에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 노조 반발 '빨간불'

노조 "협약엔 사측 고발"…시 "협상진행 계속"

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최악의 경우 공장설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이 내년부터 울산공장에서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차량 몰량 일부를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자 자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한다"며 "사측이 협약서에 사인하면 고소·고발 등 임

금협상 투쟁과 연계해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노조가 강경하게 반발하자 그동안 노조 반대를 예상했던 광주시와 현대차 측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오 늘도 현대차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노조의 반발에 실무진이 울산에 내려가는 바람에 미뤄졌다"며 "노조와 상관없이 협상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매일 29주년 창간기념

제 11회 정남진 장항모초축제

2018. 7. 27.(금)~8. 2.(목) /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3년 연속 우수축제



우중 소음훈련? 정맛비가 내린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양궁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이 전 국가대표인 기보배 등을 상대로 소음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남자대표팀 김우진·오진혁·이우석·임동현, 여자대표팀 강채영·이은경·장혜진·정다소미가 참여했다. 상대팀에는 기보배·최민선 등 광주시청·광주여대 여자 선수와 현대제철 양궁팀 소속 남자 선수들이 참여해 경기를 펼쳤다. /연합뉴스

'가다 서다' 전남 전복 섬, 혈세만 낭비

민선 6기 핵심공약...소송·감사 등 후유증 예고

진도 '전복 섬' 사업이 결국 30억원 대 손실을 떠안게 됐다. 전남도가 중국 수출전진기회 활용을 위해 민선 6기 핵심공약 중 하나로 추켜들었지만,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에 따른 혈세낭비, 소송·감사 등 후유증만 남게 됐다.

19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대한중재상사원은 최근 전복 섬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훼손으로 생긴 추가비용(이자 포함) 46억8,000여만원 가운데 30억9,000만원을 받자 주인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15억9,000만원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전복 섬 사업은 전남도가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 체제 출범 직후인 지난 2014년부터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진도군 군내면 전두-나리 일원에 추진 중이다. 해조류양식장 131ha, 가두리양식장 40

ha 등 모두 171ha 규모의 전복 섬을 조성,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을 겨냥한 수출전진기지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해조류양식장 조성과정에서 자재공급업체가 부도로 납품을 포기한 데다 시설물까지 파손되면서 책임공방이 일었다. 분쟁이 지속되자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판정결과는 전남도와 시공사간 2대 1가량 책임비율을 인정했다.

전남도는 중재판정으로 떠안게 된 30억9,000만원 중 14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했으나, 추경심의 등 나머지 비용 마련 과정에서는 의회 반발 등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구상권 청구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21일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추가부담금을 일부라도 보전하려고 감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오늘의 전남매일

- 지방선거 참패...야권 후폭풍 ▶3면
- 조선대 학생교육 혁신 ▶5면
- 광주 주52시간 근무도입 검토 ▶6면
- 청년, 그래도 꿈이 있다 ▶8면
- 차없는 거리 유명무실 ▶9면